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1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맑고 향기롭게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5 / 12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도량의 수호신들에게 드리는 기도
처음 마음으로	08	자타불이(自他不二)
따뜻한 이야기	15	꽃으로 태어나 들풀로 사셔야 했던 그분 인생
법정스님 책 속의 책	20	용서
옛날의 금잔디	22	아버지
아름다운 마무리	26	12월 결연대상자 – 임금순 어르신
숨어서 피는 꽃	28	어떤 자린고비
참교육 이야기	32	삼둥이 병영 체험, 정말 이런 방송해도 될까?
향기나는 우체통	36	네팔에서 온 편지
내 마음속 풍경	38	호스피스 병동
실천하며 삽시다	41	내가 먼저 나누어 줍시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삶(67x51) • 장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250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염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도량의 수호신들에게 드리는 기도

글 • 법 정(法 頂)

오늘은 길상사 창건 기념일이니, 이 기회에 길상사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 교단에서 세운 절은 그 시작부터가 시주의 보시에 의해서였습니다.

최초의 절은 마가다국의 근교에 있는 죽림정사(竹林精舍)로, 마가다국의 왕 빔비사라의 발심에 의해서 세워진 절입니다. 그는 부처님이 수행자이던 시절에 이미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교단이 형성되자 절을 지어 기증했습니다.

제가 불일암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겨울이면 직접 끓여 먹는 자취생활이 지겹고 세상 구경도 할 겸 1987년 겨울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송광사 분원 고려사에 가서 서너 달씩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가지 않고 경전 번역 일거리를 가져가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러기를 아마 4,5년 했을 것입니다.

이 무렵 서울 성북동의 요정 대원각의 주인 김영한(金英韓)여사를 고려사 화주(시주)인 대도행 보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한님은 당시 〈샘터〉에 매달 실리던 저의 글을 읽기 위해 정기구독자가 되었노라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원각을 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번거로운 일에 얽혀 들기 싫어하는 천성 탓에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거처를 강원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해 겨울, 중이 하는 일 없이 공밥만 축내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자책을 느꼈고, 세상에 도움이 될 일을 이것저것 모색하던 차에 '맑고 향기롭게' 살기 운동을 전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 쓰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생겨 구체적인 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거듭되는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절을 만들 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무주상(無住相) 보시(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않는, 보시라는 생각 자체를 잊은 진정한 보시)로 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모든 절이 이런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사찰 운영을 의논하는 자리에서(그때 '맑고 향기롭게' 이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저쪽 재산관리인이 앞으로 절을 운영하는 데 재단법인을 만들어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절을 세우자는 처음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절 살림에 이사와 감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절에 사는 스님과 신도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절 살림입니다.

그사이 다른 여러 스님들이 이곳에 절을 세울 생각으로 시주의 조건에 맞도록 절을 만들겠다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시주 김영한여사의 뜻은 10년 동안 초지일관, 오로지 저에게 이 장소를 맡기겠다는 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9년 전 길상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상사가 창건된 지 얼마 안 되어 시주가 세상을 뜨게 되자, 저쪽 재산관리인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절의 일부 부지(지금의 지장전과 주차장 자리)를 돌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절은 종단의 공동재산이지 결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주는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지만, 절은 개인의 사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승가의 규범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송광사 분원으로 이 절을 종단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절에 어떤 개인의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절을 세우는 데 어떤 공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불교 교단의 계율(律藏)에는 승가물(僧伽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는 사방승물(四方僧物) 또는 상주승물(常住僧物)과 현전승물(現前僧物)이 있는데, 사방승물은 그 도량에 사는 스님들이 함께 쓰는 개인의 사물을 말합니다.

사방승물은 현전승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율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리고 있는 청정한 승가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길상사에 제 개인의 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 산을 내려올 때 행지실(길상사의 주지실)에 잠시 머물 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절에서 단 하룻밤도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각이라도 자지 않고 떠납니다. 이와같은 처신은 제 개인의 삶의 질서이며 생활 규범이기도 합니다.

이 도량에 살지도 않으면서 방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법 밖의 행위입니다.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루어진 도량이므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단의 전통적인 규범에 어긋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중노릇이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남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은 더 맑고 향기로워집니다.

길상사(吉祥寺)라는 이름은, 이 절이 세워지기 전 파리에 송광사 분원으로 '길상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좋아서 따랐습니다. 또한 송광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한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절을 세우긴 했지만 자리 잡히기 전까지 저는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시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절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요정이었던 건물을 절로 바꾸느라 여기저기 손대다 보니 빚이 쌓여 갔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원을 했습니다.

"길상사가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이 도량에 몸담은 스님들과 신도들, 이 도량을 의지해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흐리고 거친 세상에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게 하소서.

좋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법답고 길상스런 도량을 이루게 하시고, 안팎으로 보호하고 있는 신도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보살핌 속에 행복한 나날을 이루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 염원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보살펴 주신 많은 분들, 소임을 보아온 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의 공덕임을 누구보다도 이 도량의 수호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6년 12월 10일
길상사 창건 9주년 법문
– 일기일회 중에서

자타불이(自他不二)

글 • 덕 운(德 耘)

부처님께서 〈범망경(梵網經)〉을 통해 세상의 복전(福田)이 되는 여덟 가지를 자세히 밝혀 놓았습니다. 이 여덟 가지가 세상에서 복을 지어가는 가장 수승한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범망경에서 밝힌 여덟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삼보를 공경하면 복은 쌓고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효양부모(孝養父母)입니다. 남의 자식 된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자식은 끔찍이 여기면서도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를 홀대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효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법을 먼 데서 구하지 말고, 내 부모가 곧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야 합니다.

셋째는 급사병인(給事病人)입니다. 병든 사람을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 구완해주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구제빈궁(救濟貧窮)입니다. 가난하고 궁한 사람을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지 도와주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광로의정(廣路義井)입니다. 들판에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서 오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자기가 사는 동네에 물이 없을 때 우물을 파서 오가는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도 복을 짓는 일입니다.

여섯째는 건조교량(建造橋梁)입니다. 개울에 다리를 놓아 편하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곱째는 치평험로(治平險路)입니다. 험한 길을 고르게 닦아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덟째는 무차법회(無遮法會)입니다. 법회를 열어서 어떤 사람이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입니다.

이 여덟 가지는 모두 훌륭한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병자를 돌보는 것이 으뜸이 된다고 합니다.

〈범망경(梵網經)〉에서 말씀하신 병자의 구호공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은 모든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마땅히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여길 지어다. 여덟 가지 복전가운데 병든 이를 간호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나 스승이나 스님이나 제자가 병이 들어 팔다리나 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뇌하거든 이들을 잘 보살펴 낫게 해야 하느니라."

경문의 말씀대로 병든 이를 돌보는 것, 그것은 공덕(功德)인 동시에 수행이기도 합니다. 실로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의 안위만 귀중하게 여기고 병든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병이나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을 보거든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능력껏 베풀어야 합니다. 불자에게 있어 남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았을 때 내 마음 또한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까닭은,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가 투명하고 밝아 안과 밖이 없고, 나와 남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이를 보고 외면한다면, 이는 결국 자기 양심을 외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든 노승을 지극히 간병한 공덕으로 불보살의 가피를 입었던 현장법사 이야기입니다.

현장법사는 당나라 사람으로서 직접 천축국에 가서 범어를 익히고, 대장경을 가지고 와서 당 태종의 외호아래 경전 1천여 권을 한역(漢譯)하신 대 고승입니다.

현장법사는 어릴 때부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고, 출가해서도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 당 태종으로부터 나라의 보배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후에 현장법사는 범어를 배워 불경을 번역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인도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그 시대에는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며 험한 길을 헤쳐 가야만 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은밀히 제자 40명만을 데리고 길을 떠났지만, 일행이 중앙아시아의 관문인 서역 땅 계빈국에 가까스로 이르렀을 때는 병과 사고로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홀몸이 된 현장법사는 걷고 또 걸어서 어느 큰 강가에 이르니 강을 건널 나룻배마저 없었습니다. 넋을 잃고 한참을 앉아 있으니 마침 강 상류로부터 집 짓는 재목이 하나 떠내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가가 있을 것이니 오늘은 거기서 쉬어 가야겠다."

한참을 더 올라가니 잡초로 뒤덮인 쓸쓸한 고찰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안쪽으로 더 걸어 들어가니 신음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니 문둥병을 앓는 노비구가 홀로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법사는 익혀둔 서역 말로 노비구에게 홀로 있는 내력을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원래 대중이 많았는데, 내가 이처럼 업병을 앓게 되자 대중이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았다오."

비록 갈 길이 멀고 바빴으나 현장법사는 죽어가는 노비구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지성을 다해 간병을 했습니다.

다행히 노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리고 완쾌되었습니다.

노승은 그지없이 감사하면서 다시 구법(求法)의 길을 떠나는 현장법사에게 범어로 쓴 반야심경 1권을 선물했습니다.

경문을 전수받은 현장법사는 재난을 만날 때마다 이 경을 독송했고 다가오는 모든 재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갠지스 강의 한 지류를 통과할 무렵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현장법사를 둘러싸더니 순식간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현장법사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꽁꽁 묶는 것이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항하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오."

인도에서는 항하의 수신(水神)을 잘 대접해야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드는데, 이 마을에는 1년에 한 번씩 산 사람을 바쳐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없어 길가는 나그네를 납치하여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인도 땅에 도착하여 범본을 구하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생각하니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터워서 같이 왔던 제자들도 다 죽고 나까지 이렇게 죽게 되니, 내가 지은 죄업이 얼마나 많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현장법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업을 깊이 참회하면서 그들에게 청했습니다.

"나는 출가한 승려입니다. 당신들이 수신(水神)에게 나를 제물로 바친다면 이 몸을 기꺼이 내어 줄 것이오. 그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문을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리고 현장법사는 노승이 준 범본 반야심경을 큰 소리로 3번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새까만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이러한 이변에 주

민들은 크게 놀라 현장법사를 얼른 풀어주었습니다.

그 뒤 현장법사는 인도의 가장 큰 대학인 나란타 대학에 들어가 여러 해 동안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고 대학에서 높은 지위로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현장법사가 불경을 한역하겠다는 원을 생각하고 고국으로 떠나려 하자 인도의 왕은 그를 아껴서 환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귀국을 결정했으며, 귀국길에 현장법사는 노승의 병을 간호해주고 범본〈반야심경〉을 얻었던 계빈국의 고찰을 찾아보았지만, 노승은 고사하고 고찰의 자취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국에 돌아온 현장법사는 그의 원대로 일생을 불경을 번역했으며 특히 〈반야심경〉을 제일 먼저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먼 후일 현장법사는 그때의 일을 회고하며 그 병든 노화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도의 구법의 여정을 돕고 자비심을 시험하기 위해 시현한 관세음보살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현장법사가 불법과 인연이 지중하고 신심이 장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피하는 문둥병 환자를 지극히 돌보았기 때문에, 환란을 벗어나고 관세음보살로부터 〈반야심경〉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의 자비심은 자기의 인생을 변하게 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곳곳에는 힘들고 병든 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외로운 곳에 처해진 사람들에 관심을 가질 때 마음속에 자비심이 깃들고 사회가 점점 밝아져서 사람들이 살만한 불국토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좌복에 앉아서 '이뭣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복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와 나는 둘이 아닙니다.

자타불이의 생각을 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하며 무소유의 정신으로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구해가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깨끗이 피어나는 연꽃과 같이, 수행하는 이들은 이러한 오탁악세의 현장 속에 처해서도 그것에 물들지 말고, 깨끗한 마음과 자비심으로 깨달음을 구현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으로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이룰 때 이 세상은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의 도(道)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의 본질은 집착을 멀리 벗어남에 있다.

또한 도(道)는 모든 모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들에게 수행의 목적지(目的地)가 된다.

경에 이르기를 "벗어남은 곧 깨달음이다. 그것은 모든 모양이 실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삼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계이다.

삼계를 떠난다는 것은 곧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서 계(戒), 정(定), 혜(慧)로 돌아감을 뜻한다.

경에 이르기를 "오직 사람이 세 가지 독(毒)에 물든 세상에 살면서도 순수한 불법(佛法)으로 자신을 정화(淨化)해 간다면 그가 곧 부처다"라고 하셨다.

세 가지 독이란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대승은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것은 보살이 타고 가는 수레이다.

그들은 어떤 것도 사용함이 없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

그들은 전혀 돌아다님 없이 종일토록 길을 돌아다닌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수레인 것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수레 없음이 곧 부처의 수레이다."라고 하셨다.

또 경에 이르기를 "육신이 오대(五大/지,

수, 화, 풍, 공)가 한데 모인 동굴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선(禪)이다.

한번 그대가 이것을 깨달으면, 걷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그대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선이다. 몸과 마음이 비어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를 아는 것이다.

선의 길에서 보면 부처는 어떤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무심(無心)을 아는 것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아무런 후회 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가장 위대한 덕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을 모두 초월하는 것이 가장 지고한 명상이다.

중생은 아라한이 고요함에 머무를 때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러나 지고한 명상은 이들 중생과 아라한 둘 다를 초월한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모양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치료하지 않고도 모든 병을 낫게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선의 위대한 능력이다.

위의 내용은 달마 스님의 불승론(佛乘論)을 대략 간추려 본 것입니다. 조용히 깊이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뭔가 훤히 열리는 듯한 지고한 깨달음의 세계가 다가올 것입니다.

길상사 도량이 물감을 뿌려 놓은 듯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있음으로써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감각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먼 곳에서 행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행복을 그대로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불기2559년 10월 초하루 법문
(2015년 11월 12일)

꽃으로 태어나 들풀로 사셔야 했던 그분 인생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떠나신 후, 다섯 살이던 저와 세 살이던 남동생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기억 속의 첫 어린 시절이 있겠지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은 할머니 손에 맡겨지고 1년이 지난, 여섯 살의 봄입니다.

그날, 도시 생활을 하고 있던 친척들이 저와 제 동생 문제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와 친척들의 대화는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큰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며,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먹이시던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는 저희 남매의 손을 이끌고 문밖을 나섰습니다. 누구 한 명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버선발로 뛰쳐나와 저희 남매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고아원에도, 아들 없는 집에도, 나는 못 보낸다. 죽은 내 아들 불쌍해서 이것들 못 보낸다. 느그들한티 10원 한 푼 도와 달라고 안 헐라니까 보내지 마라. 그냥 내가 키우게 놔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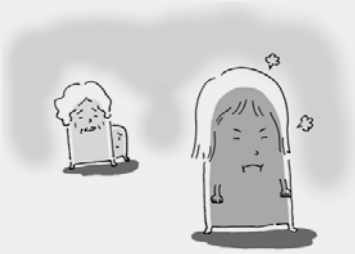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 남동생도 없었겠지요.

할머니의 눈물이 지금의 저희 남매를 있게 해준 것입니다.

고아원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버지 없는 집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 남매는 할머니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것인데 철이 들 무렵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의 집 일을 다니시며, 받아오신 품삯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억척스러워지셔야 했는지 그때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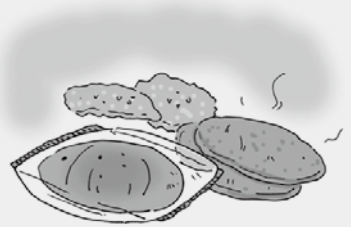
그저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새 옷 한 벌 없이 남의 옷만 얻어 입는 것이 불만이었고, 운동회 때 할머니랑 함께 달리는 것이 불만이었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동네에서 학교에서 불쌍한 아이 취급 받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지, 남의 집으로 옷을 얻으러 다니며 얼마나 고개를 숙이셨을지, 소풍 가는 손주들 김밥 한번 싸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다른 아이들은 운동회 때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을 나이 드신 당신 몸으로 해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때는 철이 없어 몰랐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여서 뭐 하나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싫고 창피할 뿐이었습니다.

당신 체면이나 얼굴을 버리시고, 오직 저희 남매를 위해 사신 분인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앉았다 하면 신세한탄이 먼저 나오는 할머니셨지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과자 한 봉지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고, 이발소에서 공짜로 머리를 자를 수도 있었고, 새 연필 한 자루라도 얻어 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철없는 남매를 기르시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억척스럽고 강하게 보이셨지만, 사실 누구보다 여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남의 집에 일하러 가셔서 새참으로 나온 빵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할머니…….

매주 한번 장에 나물을 팔러 가시는 날에는 꼭 순대 한 봉지라도 사오시는 분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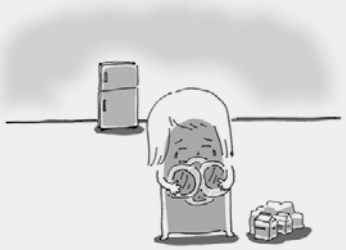
동생과 제가 싸울 때면 뒤란에 있던 탱자나무 가지로 종아리를 치셨지만, 금세 약을 발라주시며 눈물을 훔치는 분이셨고, 과자 하나 맘껏 못 사줘 미안하다며 문주를 부쳐주시고, 개떡을 쪄주시고, 가마솥 누룽지에 설탕을 발라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 대신 고추밭 씌우는 비닐로 온 몸을 둘러주시고 빨래집게로 여기저기 집어주시며,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이 넌 우산도 없느냐고 놀리거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돌돌 싸매면 비가 한 방울도 못 들어와서 옷이 안 젖는다더라. 너도 너네 엄마한테 나처럼 해달라고 해봐"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던 분이셨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함께 했던 유년 시절이 스물아홉 제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각각 천안과 예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남의 집 일 다니시며 새참으로 받은 우유와 빵을 냉장고에 넣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남들 먹을 때 같이 드시지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먹지도 못하는 걸 왜 넣어놓으셨냐고 화를 내면, "니덜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야 말이지. 니덜 오면 줄라고 냉장고에다 잘 느놨는디, 날짜가 지나서 워쩐다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할머니를 가엾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냉장고 속 가득한 빵과 우유를 버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한 저는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제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단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 약재시장에 가서 좋다는 약재를 보내드리고, 할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동네 할머니들과 식사라도 하시라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주말에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와 장터 구경도 나가고, 명절에는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서 돈가스도 사드렸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던 날, 할머니는 돈가스 한 접시에 음료까지 다 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양두 얼마 안 되는 것이 참말로 맛나다, 이런 것이면 몇 접시라도 먹것다."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남은 소원이 제가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고, 이쁜 새끼 낳아 사는 거 보는 거라고 하셨는데, 할머니 소원대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다음 달이면 돌을 맞는 예쁜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올해로 팔순이 됐습니다. 허리도 굽어지셨고, 검은 머리가 한 가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거동도 불편해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만 납니다.

제가 할머니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철이 드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그 중 으뜸은 '부모님'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낳아서 길러주신 분만 '부모님'일까요? 가슴으로 낳아 사랑으로 길러준 분이 계시다면, 그분 또한 '부모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순 없겠지만, 가장 큰 효도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효도는 없습니다.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따뜻한 하루'

용서

달라이 라마·빅터 챈

달라이 라마는 1989년 54세이던 당시 단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최초의 동양인이었다. 노벨상 위원회 의장은 달라이 라마의 수상을 발표하면서, 비폭력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밝혔다.

"비폭력이라는 방식이 지난 30년 동안 티베트의 독립을 성취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다른 해결 방식은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폭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평화적인 길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는 평화의 철학을 가장 분명하고 훌륭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 지성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인으로 뽑힌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이다. 그가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강연할 때면 수만 명의 일반인들이 운집했으며, 하버드 대학과 MIT등에서 그를 특별 초청해 불교와 인간 존재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면 참석한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그의 어떤 점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가?

달라이 라마는 그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다. 또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라고 여긴다. 이 피부 아래에는 똑같은 본성, 똑같은 종류의 욕망과 감정이 숨겨져 있다. 나는 늘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느낌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제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갸초(Tenzin Gyatso)는 1935년 중국 티베트족 자치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중국의 핍박을 피해 1959년 인도로 망명했으며, 지금까지 티베트인들의 영적 지도자로 티베트의 독립 운동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의 비폭력 정신과 투쟁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세계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게 했으며, 그가 가르치는 자비와 타인에 대한 이해, 행복에 대한 생각은 티베트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공감을 얻었다.

1989년 노벨평화상, 1994년 세계안보 평화상, 루스벨트 자유상, 앨버트 슈바이처 인도주의상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Dharamsala)에서 활발한 강연과 저술을 하고 있다.

홍콩 출신의 중국인 빅터 챈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에서 동양학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가 달라이 라마와 함께 쓴 〈용서의 지혜〉는 미국 리버헤드에서 2004년 발간되었으며, 류시화 번역으로 열림원에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책의 출간 이후 새해를 맞는 한국 독자에게 용서를 주제로 신년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를 계기로 〈용서〉는 더욱 화제가 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 책의 추천 글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가에 따라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할 것이다."라고 썼다. 그분의 임종 전 마지막 메시지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였다.

법정 스님은 "용서는 가장 큰 마음의 수행이다. 상처의 가장 좋은 치료약은 용서하는 일이다."라고 이 책의 추천 글을 썼다.

아버지

글 • 윤언덕(작가)

아버님은 술과 담배를 즐기셨다. 내가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극단적으로 악화하여 가고 있었으나 가족 중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았고, 취미생활조차 없으셨으므로 삶의 기쁨 역시 부재했을 것이다. 술과 담배는 그나마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당신을 지탱시키는 기둥이었다.

아버님은 감기 등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실 때마다 '죽겠다'며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어머님과 세 아들은 '건강염려증'이란 병에 걸린 아버님의 엄살이려니 하고 무심히 넘기기 일쑤였다.

그도 그럴 것이 웃통을 벗으면 보디빌더를 연상시키는 탄탄한 몸매와 거의 매일 소주를 한 병씩 드시는 음주량을 고려할 때 아버님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리는 만무하다고 변변찮은 상식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아버님은 어느 날 직장으로 향하던 출근길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으시고 말았다. 철도청 객화차 사무소 근처인 부산진구 당감동 남도교회 앞길이었는데 다행히 교회로 가던 젊은 아가씨가 경찰에 연락하는 도움 덕택에 급히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담배 한 대 내봐라!"

한 마디 말씀을 내뱉을 때마다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버지는 네 담배 피우는 거 벌써 알고 있었다. 한 대 피워야겠다."

그해, 내가 스무 살이 되었던 해의 무더운 여름날, 부산 동구 초량에 위치한 성분도병원의 병실 앞뜰이었다.

나는 그해 대학에 입학하여 가족 몰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아버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쓰러지신 아버님은 말기 간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길어야 3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했다. 가족 모두 아버님께서 낙심하실까 봐 그 사실을 숨겼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병원 측에 수술을 요청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아 이틀 동안 의식을 잃으셨다. 그러다 모처럼 깨어나셔서 병실 앞을 힘들게 거동하셨는데 부축하는 막내아들에게 근엄하게 하신 말씀이다.

"너, 네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진짜 내 병명이 어떤 것이고 살 수는 있다더냐?"

가족끼리 말 맞춘 대로 거짓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별것 아닌 병이랍니다. 수술하고 한두 달 입원했다가 완치 후에 퇴원하면 되구요."

"하아, 그런가?……."

설마 그 순간이 아버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다. 불효자식이었는지, 철이 없었는지 간암 수술을 받으신 아버님께 담배에 불을 붙여 건네 드렸는데 엄숙할 정도로 진지하고 소중하게 피우셨던 기억이 생생하다. 53세의 아버님은 그로부터 1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다.

생전에 무신론자였던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 나는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니던 성당의 주임 신부인 오수영 신부님이 병원에 오셨다. 신부님은 극작가 오혜령 씨의 사촌 오빠로 기억하는데 이후 근무지를 옮겨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사목하다 지금은 은퇴하셨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사회와 가정에서 소

외된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이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날, 신부님은 우리 가족에게 '본인이 거부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으셨고, 아버님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고 세례를 받으셨다.

나는 그때 병실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신부님이 신으셨던 구두의 약칠이 벗겨져 희게 보였던 게 유달리 기억에 남는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후 신부님은 그 주 주일미사 강론 때에도 장례미사 때 이미 말씀하신 '선량한 그분이 탁주 한잔 하자고 청했는데 바빠서 응하지 못한 게 내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을 거듭하셔서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이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각종 사후 마무리는 내 몫이었다. 장례식 후 어머님은 몸져누웠고 형들은 객지에 있는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갔다. 마침 방학이어서 사망신고 등 각종 행정 처리를 이제 성년이 된 내가 해야만 했다. 며칠 후 아버님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다. 아버님의 근무처인 철도청 객화차 사무소의 행정실은 방 구석구석 온통 기름때에 찌든 곳에 오래된 책상을 대여섯 놓아둔 그야말로 초라하고 허름한 장소였다. 사무실 입구에 앉아있는 양복 입은 남자에게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더니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 다가와서 손을 잡고 위로해주었다.

"안됐다. 막내아들이 명문대 입학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아버님께서 남긴 삶의 마지막 흔적인 퇴직금을 받고 사무실을 나섰다. 아버님의 일터인 철로변에는 7월의 검붉은 태양 아래 검은 얼굴의 초췌한 중년 사내들이 시퍼런 작업복에 시커먼 기름 범벅이 된 채 담배를 피우며 더운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고단했던 삶의 모습이 겹치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풍수지탄(風樹之嘆)이란 말이 있다. 불효했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중3 때 경찰서장 아들이던 친구와 둘이서 하교하는 길이었다. 등 뒤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누가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렸다. 나를 부른 사람은 마침 퇴근하던 아버님이었는데 옷차림은 어찌나 남루하며 키는 왜 그렇게도 작아 보이시는지…….

게다가 한국전쟁 부상의 후유증으로 그날따라 다리를 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버님의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에 창피함을 이기지 못한 나는 '저분 누구냐?'는 급우의 물음에 '이웃집 아저씨'라고 둘러대고 말았다.

작년 모 대학교의 축제 때 가수 싸이의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다. 싸이는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랫말은 어찌나 슬픈지 나는 노래가 끝난 후에도 북받치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노래에서 계속되는 후렴 부분은 이랬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아들로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 어떤 위로의 말도 못 드렸으며 아무런 보호와 희망의 몸짓도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야만 했고 어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아버님은 지금의 나보다 적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런 나이가 되고 보니 아직 나 자신이 철들지 않음을 알게 되고, 이제 철들려 하는 나는 다시금 아버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아들아이의 나이가 아버님을 보낼 당시의 내 나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철없던 그 날의 그 장면은 내 나이 오십이 넘은 지금에도 비수(匕首)처럼 나를 찌른다.

12월 결연대상자 – 임금순 어르신

55세의 나이, 평범한 중년의 인생을 보내고 있어야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이웃의 방문에 문을 열어주려면 5분이 걸리고, 백여 미터 떨어진 시장에 가는데도 20분 이상 걸립니다.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임금순(가명)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공장에 다니던 남편과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새색시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두 아들을 낳고 난 후였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급기야 도박에 빠져 큰 빚마저 떠안게 됩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수 년 동안 일하며 빚을 갚고 집안일까지 꿋꿋이 이겨냈지만 어느 날부터 불안 증세와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땐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처럼 우울증이라는 병이 많이 없었으니까……." 불안 증세는 점점 심해져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웠던 임금순님은 초등학생이던 아들 둘을 부산에 두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서울 성북구에 와서도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임금순님은 얼른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고혈압, 고지혈증 합병증으로 인해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무리를 했던 탓이었을까요. 일을 하던 중 쓰러졌고 9개월 동안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0세의 나이에 닥친 중풍이라는 병마였습니다.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고, 모아둔 재산을 치료비로 전부 탕진하고도 모자라 1,000만 원의 카드빚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몸 왼쪽 전체에 감각이 없어져, 혼자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치료와 운동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러 왼쪽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던 와중에 복통이 지속되고 배가 붓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자궁에 혹이 있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했고 또다시 몇 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전과 달리 장애등급이 있는 상태여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올해 4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재활병원에 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정강이뼈가 부러져 심 8개를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자식 버리고 떠난 엄마가 이런 몸으로 만나러 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낫고 건강해지면 그 때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미안하다고 말할거에요. 꼭" 계속된 병과 사고로 인해 의기소침해질 법 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아이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현재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꾸준한 재활치료로 보조도구를 사용하면 천천히 이동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임금순님은 생계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인해 진 카드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지만 항상 생활고에 허덕입니다. 임금순님이 건강한 어머니로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아름다운 마무리 사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희망해'에서 희망모금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린고비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1987년 10월 28일은 부름의전화 창립일이다. 그때까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단체가 없었으니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봉사단체가 되었다. 희귀성 때문인지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중증 재가장애인들의 도움 요청이 쇄도했다.

그때는 부름의 전화를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큰 단체로 키워보겠다는 욕심은 더더구나 없었다. 중증 장애인들이 두문불출하며 음지에서 웅크리고 살아가는 삶이 안타까워 무작정 그들에게 달려갔다. 어떤 장애인은 5층 계단 위의 작은 아파트에서 7년 동안 문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다고 했다.

5층 계단 위의 집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위자료로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본인도, 가족도 다시는 밖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자원활동자가 그 장애인을 업고 5층 계단을 내려와 휠체어에 앉혔을 때 그분이 토해낸 말은 "아! 하늘은 아직도 파랗구나"이였다.

날이면 날마다 자원활동자를 부르는 절박한 전화가 쇄도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자원활동에 동참하여 〈부르는 소리〉에 달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자원활동자들의 땀방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 지원, 때로는 병원 진료비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생겼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자원활동은 선한 마음과 행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시행착오였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생각났다. 그러나 자원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인데 정부에 지원금을 달라거나, 누군가에게 후원금을 달라는 것은 순수 자원활동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장애인 들먹이며 모금운동하지 말자, 장애인 들먹이며 후원금 얻으러 다니지 말자"를 부름의전화의 신조처럼 외치며 지로용지 한 번 만들지 않았고 온라인 은행계좌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신념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자원활동을 할 수 없으니 후원이라도 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모아 장애인을 지원하고, 기금을 모아 '손끝으로 보는 세상이 눈부시다' 라는 제목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농사짓고, 김치 담그고, 공예 작품을 제작하는 일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63빌딩에서 시사회를 열었다.

SBS에서도 특집으로 방송되었다. 그 모든 일들은 소리 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속옷까지 기워 입는 것은 물론이고 일이천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기어코 몇백 원이라도 깎고야 마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자린고비 할머니가 생각난다.

63빌딩에서의 비디오 시사회와 작품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작품전시회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구내에서 전시물들을 운반하고 작품을 전시하느라 한창 바쁜 시간에 전화를 받았다.

80이 넘은 어르신의 전화였다. 평

생을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었다.

그런 어른께서 꼭 만날 일이 있으니 은행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왜 하필 은행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일까? 약속 장소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그 장소까지 가려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할 거리였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약속한 장소로 갔다. 당연히 누군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짐작과 다르게 그 어른은 혼자서 은행창구의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은행직원과의 대화 분위기로 보아 그 어른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2개월만 기다리면 만기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대출을 하려고 하십니까?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면 그 약속이야 지키겠지만 가족들도 모르게 할머님께서 대출까지 받아서 무엇에 쓰실 건지 궁금하군요". 은행직원의 말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나로서는 그 어른의 비밀스런 일을 몰래 엿보기라도 한 것 같아 머뭇거리며 몸 둘 곳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른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손짓을 하셨다.

어르신은 수표를 챙겨들고 나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할머니를 부축하였지만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자세였다.

은행 문을 나서자 어르신은 방금 은행직원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내 손에 쥐어주시며 "아무 말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신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더구나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당황하여 흠칫 물러서며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평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받으라구. 어제 비디오 시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해서 결정한 일이니 사양하지 말고 교육 자료라도 만들어"

"그러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하자 "마음이 변하면 안 되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음이 변하거든. 어제 밤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네. 백만 원만 할까. 이백 만원만 할까.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 오백만원이네.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아마도 마음이 바뀔지 모르지.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으니 편한 마음으로 받으라구"

나는 어떤 몸짓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며 여전히 어르신의 체중을 온몸으로 받으며 고작 생각한 것이 좀 더 편하게 귀가 할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택시를 부르려 하자 한사코 사양하셨다. "이곳까지 올 때도 쉬면서 쉬면서 걸어 왔으니 염려 말고 빨리 가기나 해" 하시며 손을 저으셨다.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거룩한 자린고비.

택시비조차 아끼시느라 몇 번씩 길가 경계석에 앉아 호흡을 조절하고 쉬어야만 귀가 할 수 있는 불편함을 선택하셨던 그 자린고비를 생각하면 이 가을 하늘이 더 푸르고 높아 보인다. 부름의전화가 28주년을 달려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의 힘이었음을 잊지 않는다.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12월 5일(토) 오후 4시 30분 / 선열당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발적인 자원활동에 참여하신 회원님을 초대하여 웃음과 반가움이 가득한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 **프로그램** : 저녁식사·모범 봉사자 시상·활동 보고·화합의 시간·행운권 추첨

*** 당일 참석하신 봉사자, 후원회원님께 법정 스님 저서 1권 증정**

삼둥이 병영 체험, 정말 이런 방송해도 될까?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송일국 씨의 아들, '삼둥이' 형제가 병영체험을 다녀오는 과정이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 네 살짜리 아이들이다.

군복을 입고 줄을 맞추어 연병장에 도착하는 아이들…. 거수경례할 것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이마에 갖다 붙이고…….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제식훈련을 하던 도중 울음을 터뜨린 송만세'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다.

'삼둥이'는 연예인 아버지를 둔 덕분에 태어나서부터 연예인이 됐다. 이제 아역프로그램을 소화할 차례인가? KBS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을까? 제작진의 설명에 따르면 '군인이라면 기본이 되는 제식훈련이 필요한데 '아이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네 살짜리 아이에게 규칙과 질서를 가르치겠다? 그렇다면 삼둥이가 군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부모들도 군대정신이 투철한 아이로 키우도록 홍보하기 위해서일까?

어린이들에게 군대식 훈련을 체화하는 것은 아동학대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병영체험은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이자 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른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어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공중파가 군사문화를 대중화시키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겠다는 것은 더더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린이 날이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씩씩한 국군아저씨들이 나와서 총검술이며 제식훈련 시범을 보이고, 비행대의 곡예훈련에 아이들은 열광한다. 모처럼 부모의 손을 잡고 손에 손에 풍선이며 먹거리를 들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군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신기해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씩씩한 국군 아저씨들의 늠름한 모습에 감동받은 아이들은 '나도 커서 저런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어린이날에 왜 군인들이 나와서 쇼를 해 줄까?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군인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힘겨운 훈련을 쌓은 후 행사장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명분은 '군에 대한 홍보'지만 알고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도요, 군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군대 갔다오면 사람 된다'말이 있다. 맞는 말일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젊은이가 군에서 생전 처음 해 보는 고생이며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집이 좋다'거나 '부모님 그립다'는 감정으로 나타난 결과지, 군대가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군 생활을 통해서 마치 철이 드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군대 생활이 정말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군사문화가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긍정적인 기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치 내면화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힘의 논리, 아부와 굴종,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강압적인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와 '요령주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다. 순종이 미덕이라는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가치관이다.

네 살짜리 아이에게 군사문화를

체화시킨다?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는 아동학대요, 무모한 짓이다.

최근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진짜 사나이'가 인기를 얻자 여자 탤런트들까지 동원해 병영생활체험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생각 없이 보면 군생활의 추억을 되살리는 단순한 재미로 볼 수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어린이까지 동원해 군사문화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진짜 사나이'가 아니라도 드라마를 비롯해 공중파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보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의 신비한 세계를 즐긴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 속에도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강자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시청자들은 얼마나 될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지혜. KBS에서 방송하는 먹방(먹는 방송)을 보자. 배가 고픈 시간에 내보내는 먹방을 보면 주로 고기 종류다. 그런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이 제작자들은 오직 시청률만 생각한다. 육식중심의 생활문화가 비만증을 비롯한 성인병을 불러오고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봤을까?

드라마는 누가 만들까? 방송사? PD? 사람들은 드라마 제작자를 방송사나 PD로 착각 하지만 알고 보면 자본이다. '삼둥이' 형제가 병영체험하는 프로그램 속에는 '군사문화 보급'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숨겨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시청률을 높이겠다는 자본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청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막장드라마나 만들고, 주구장창 먹방이나 내보내는 공중파의 속셈을 시청자들은 알지 못한다.

'뉴스의 전달 기능과 함께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언론이 감당해야할 책무다. 병영문화나 군사문화를 보급하고 막장드라마를 제작, 방송하는 공중파들은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고 있을까? 시청자들의 건강이나 환경파괴를 고려하지 않고 군사문화를 보급하는 방송은 방송윤리를 지키고 있을까? KBS가 방송하는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암기한 지식을 몇 개 더 암기하는가의 여부로 영웅을 만드는 경쟁논리를 보급한다. 전자사전 하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알 수 있는 허접한 지식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경쟁은 언론의 기능이나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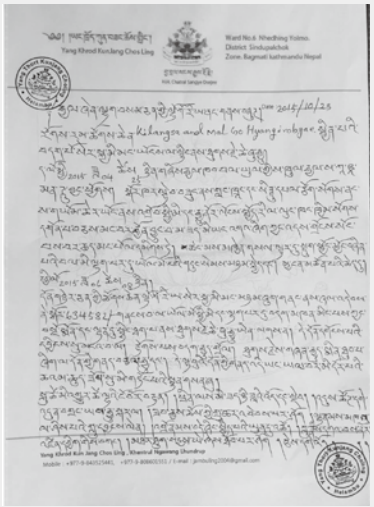
"슈트와는 달리 헐렁한 핏의 팬츠와 롱 재킷 스타일의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식의 모던하면서도…."

이런 말을 알아듣는 시청자는 얼마나 될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국적불명의 이런 언어가 놀랍게도 우리 말글을 가꾸고 다듬어야 할 언론이 공중파를 통해 내뱉는 언어들이다. 전파를 이용하여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공중파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순문화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를 외면한 채 언어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 아래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문화, 병영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권위주의와 무사 안일, 그리고 지배와 복종과 같은 힘의 논리가 숨어 있는 군사문화는 민주주의 가치관이 아니다. 군복무를 마친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나 자신이 군대에서 당했던 기합을 학생들에게 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군사문화의 그림자를 본다.

맑고 밝게 자라야 할 어린이에게 군사문화를 체화시켜서는 안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지적하고 있듯이 아이들에게 군사문화를 체화시키는 것은 반민주적 반인륜적인 아동학대다. 먹방이나 막장드라마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이에게 병영체험을 시키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공중파의 폭력은 멈추어야 한다.

네팔에서 온 편지



이웃나라에 이타행을 보여주신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맑고 향기롭게 자선 모임과 길상사의 스님과 재가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2015년 4월 25일 정오 무렵 우리나라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 북쪽지역, 고르카를 진앙지로 해서 랑탕과 신두팔촉지역 안쪽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여, 모든 중생 특히 주민들의 재산이었던 산과 집들, 많은 절들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죽고해서 대재앙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고통을 받고 있는 네팔 사람들, 특히 '욜모' 주민들의 큰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들의 큰 슬픔을 위해 2015년 6월 8일에 귀 단체의 관심 있는 한국의 많은 스님들과 재가자분이 함께 모아주신 기부금(네팔 화폐 634,582Rs)을 보내주심을 '욜모' 주민들과 특히 켄뽀인 저 또한 회향기도와 함께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와 같은 뜻을 그 마음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제 임의로 다른 이들에 대한 자비심이 잘 전달되고 이룰 수 있도록, 현지에 맞게 실제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점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뜻있게 사용함을 전합니다.

수명이 변하지 않는 신의 목숨의 본질처럼 영원하기를.
수없이 많은 선행(善行)이 일월(日月)의 빛을 서로 한데 모으는구나.
승가의 수는 흐르는 은하수에 빛나는 별보다 적으니,
광대하고 심오한 불법의 배가 비를 내리게 하소서.

신들이 하늘에서 앎의 노래를 부르니,
중생들은 행복과 안녕을 누리며 살아가네.
천룡팔부가 기쁨에 겨워 귀한 보물들을 가득 채우니
궁극에 이르러 불지의 경지를 이루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공덕을 이루기를…….

2015. 10.25. 양톨 꾼장 초링 무문관, 켄뚤 아왕 훈드룹 드림

호스피스 병동

글 • 이경숙(수필가)

"아직 살아 있을까?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진다. 버스에서 내리자 병원 장례식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덩치가 큰 건물은 입을 크게 벌리고 음울한 기운을 흘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뛰다시피 걷는다.

불과 20일 동안 나는 이 병원에서 다섯 번의 죽음을 만났다. 꺼져가는 생명들을 곁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몹시 힘들었지만,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나의 발길은 날마다 그들을 향해 갔다. 친정 고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은 행렬처럼 이어졌고 나는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듯 그 죽음들을 숙연한 마음으로 들여다봤다. 내 생애 가장 엄숙하면서도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이 무거웠던 스무 날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들의 죽음은,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믿어왔던 내게 그렇지 않다고 도리질했다. 죽음은 시트 한 장 사이에서 가볍게 오고 갔다. 하얀 시트를 걷어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죽음의 자리가 삶의 자리로 바뀌어졌고 그렇게 바뀐 삶의 자리는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또 다른 죽음을 받아내기도 했다.

친정 고모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다. 병동 입구엔 잘 익은 홍시 빛깔로 "사랑의 병동"이라고 쓰여 있었다. 구석구석 예쁜 화초와 책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다른 병동과 사뭇 다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나를 따라오던 죽음의 그림자도 저만치 비켜선 듯 나는 호스피스 병동 입구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숨을 고를 수가 있었다.

여든셋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하고 총기 있던 고모님은 이름 모를 병으로 석 달을 앓았다.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입원하였지만 끝내 병명도 알아내지 못한 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온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어대며 고통스러워하던 고모님은 그리로 옮긴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 고모님은 천근만근이나 되는 듯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셨다. 그러다가도 "고모, 눈 떠 보세요. 보여요?"라고 하면 있는 힘껏 번쩍 눈을 뜨시고 실내를 휘이 돌아보셨다. 당신이 주무시는 동안 가족들이 살그머니 곁을 떠날까봐 맘 놓고 주무시지도 못하더니 하루 사이에 고모님의 눈꺼풀은 그렇게도 무거워진 것일까?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던 고모님의 눈꺼풀은 영영 올라갈 줄 몰랐다.

고모님의 병실엔 임종을 기다리는 이가 두 명 더 있었다. 마흔의 젊은 여자와 일흔 넷의 할머니였다. 내가 그곳을 드나들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는 잠자는 듯 길을 떠나셨다. 폐암으로 두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다며 밝게 웃으시던 게 불과 한나절 전이었다.

고모님 왼쪽에 있던 마흔 살 여자는 살짝만 건드려도 짜증을 냈다. 암세포가 뼛속까지 뻗어나가 몸이 조금만 흔들려도 고통스럽다고 했다. 난 가랑잎 같은 그녀에게 자꾸 마음이 쓰였다. 간병인을 퍽도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녀는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요구사항이 많았다. 어쩌면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만난 남자와 재혼했지만 그 역시 행복하지가 않았던 모양이다. 돌이 갓 지난 아들 하나 들쳐 업고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고 했다. 열아홉, 다섯 살인 두 아들이 하루 한 번씩 엄

마를 만나러 왔다.

고모님이 떠나신 뒤에도 나는 날마다 그녀를 보러 다녔다. 어떤 날은 웃으며 반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잠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통증을 견디느라 몸부림치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그녀는 자꾸만 떡을 찾았다.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지 오래되었고 떡처럼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은 더더욱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난 그녀가 좋아하는 떡을 종류별로 바꿔가며 사 날랐다. 어느 날 그녀는 떡을 담았던 통에 손을 넣은 채 다시는 깰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얀 플라스틱 통 안에는 먹다 남긴 인절미 두어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죽은 다음 날, 친정 고모님이 머물렀던 병상에 사슴처럼 눈이 큰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가 그곳에 들어오고부터 병실은 환하게 반짝였다. 위암으로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벙글어진 다홍빛 아이리스 같았다. 마지막 남은 기름을 짜내 불을 지피듯 그녀는 날마다 꽃을 피워냈다. 곁에는 듬직하고 잘생긴 남편과 친정식구들이 번갈아가며 머물렀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와 있는 죽음을 마주하고도 평정을 잃지 않던 가족들을 보면서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 어디쯤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었던 것일까. 그녀의 얼굴에 피었던 꽃들이 한잎 두 잎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딱 하루를 거르고 찾아간 날, 병실 문에 붙어 있던 그녀의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세상에 뿌리를 박고 있던 그녀가 송두리째 뽑혀 나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아득한 곳에 있는 산그늘을 세상 속으로 끌고 내려왔다. 빈소는 깊은 그늘에 잠겨 모든 것들이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낯이 익은 유족들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황망히 그곳을 빠져 나왔다.

집으로 오는 길, 도로변 가로수에선 하염없이 낙엽이 지고 바람 따라 나뭇잎들이 이리 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내가 먼저 나누어 줍시다

연세가 예순이 넘은 회원들이십니다.

아마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어르신들은 결식이웃 후원금을 주십니다. 어느 날은 올해 두 살 된 손자 생일이어서 그 아이를 얻은 감사함을 다른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 하십니다.

또 어느 날은 며느리 생일이라서, 자녀 생일이라서 당신의 지갑을 털어내십니다.

추석이나 설이면 식용유나 구운 김이나 미역을 보내주는 회원님도 계십니다. 매주 밑반찬을 조리해 전달하고 있는 주변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사무실 활동가들의 간식거리도 사무실 입구에 슬쩍 놔두고 부끄러운 듯 달아나는 분도 계시고, 택배로 꿀이나 많지는 않지만 농사지은 것을 보내주는 분도 계십니다.

집에서 친환경 수세미를 떠서 가져다주시고, 종이 연꽃을 접어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동전을 모아 사무실이나 종무실에 전해주십니다. 어느 분은 모금통에, 어느 분은 비닐 봉투나 플라스틱통에 담아서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요.

맑고 향기롭게의 여러 자원활동에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 나눔 활동에 동참하시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럽고, 정말 닮고 싶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2015년 중앙모임의 여러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욕심내지 않고, 나누고 양보하면서 우리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2016년에도 정직하게 맑고 향기로운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 사업

① 월간 '맑고 향기롭게' 발행 :

- 2015년 12월 통권 250호 발행
- 중앙·경남·광주·대전 모임, 길상사 활용
- 월 10,000부 발간
- 교도소, 군법당, 병원, 복지시설 배포
- 소식지 발송 정기 봉사팀 운영 / 매월 15~20여명 참여 중

② 연꽃 스티커 배포 :

- 맑고 향기롭게 전국 사무국, 길상사 안내실, 진영각에서 배포, 행사, 모금, 홍보활동을 통하여 배포
- 한글판, 영문판 제작 / 2015년 1만5,000부 배포

③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 특강)

- 4월 26일. 변택주 전 이사님
- 5월 31일. 현장 스님(전 이사님)
- 6월 28일. 문현철 교수님
- 7월 26일. 고 현 교수님
- 8월 30일. 윤청광 전 이사님
- 9월 20일. 박청수 원불교 교무님
- 10월 25일. 김종철 교수님
- 11월 29일. 김영동 국악음악가

④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 2015년 3월 22일 / 법정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진행

⑤ 맑고 향기롭게 심볼,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상품 시범 운영

- 중앙모임 :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브랜드 포교 활성화, 문화상품 시범 개발 및 의류리폼, 천연화장품 사용 증대를 위해 길상사 안내실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에 재환원하는 사업 추진 중
- 지역모임 :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회원들 간의 모임 및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익사업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광주모임 : 맑고 향기로운 가게 개원
– 대구모임 사옥 이전

⑥ 2030 푸른 모임

맑고 향기롭게 회원, 자녀 중 20대에서 30대까지의 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공연관람을 통해 장애인 및 소규모 공연단체를 후원하고, 서로 간의 활발한 만남을 기반으로 친목을 다지며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푸른 모임"을 재전개함

⑦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 12월 5일
- 후원회원, 봉사자와 함께 식사와 더불어 화합의 시간

세상 사업

①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사업

- 총 39명 장학생 선정/ 수업료, 학교운영회비 전액 지원
- 4월 17일 장학증서 전달식 진행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사업 현황]

1) 1994년~2005년 까지 총 24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2006년 ~ 2014년 까지 265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1994년 ~ 2015년 장학금 : 총 553명의 중, 고생 / 총지급액 : 약 8억여 원

② 복지시설 정기 방문 자원활동

- 서울노인복지센터

– 매주 월요일, 점심무료급식 지원 노력봉사

- 묘희원 노인 요양원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농사일 돕기 및 시설 정비 봉사

- 진인노인요양원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청소 및 주방 봉사, 오후: 어르신 놀이 활동

- 월곡 청소년센터 위탁 운영 : 청소년 이용시설, 방과후 교실 운영 재정 및 물품후원

③ 나눔 행사 개최

- 묘희원

– 10월 4일, 어르신&장애인 200여명과 함께 하는 정원 파티

- 서울노인복지센터

– 10월 12일, 고기(단백질)섭취가 적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제육볶음 지원, 점심 식사 봉사를 진행

- 진인노인요양원

– 11월 8일, '어르신의 마음' 국악 공연 및 노력봉사활동

④ 결식이웃 밑반찬 후원 사업

- 매주 목, 금 독거노인, 결식아동,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
- 현재 440가구 및 단체 1곳 지원
- 분기별 농협상품권 가구당 3만 원권 지급
- 연 3회 명절(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특별 후원
- 3월~11월 둘째 목요일 김치 전달

⑤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눔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넉넉한 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약 4,000여 포기의 김장을 담아 996가구에 각 10kg씩,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나눠드렸습니다.

⑥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관등) 운동

- 법정스님께서 초창기 맑고 향기롭게 운동으

로 펼치시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등 밝히기 운동을 되살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 전개

⑦ 전화말벗 정기 활동

- 밑반찬 지원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는 결식 이웃, 장애인 가정에게 봉사자가 매주 1회 이상 전화하여 건강 및 안부를 묻고, 말벗을 해드리는 활동

⑧ 대상자 사례관리 및 방문상담

- 밑반찬, 전화말벗 대상자 중 특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사무국에서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사례관리 진행

⑨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 진행

-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모금 캠페인 진행
- 4월 ~ 11월까지 길상사 경내 월 2회 캠페인 활동

⑩ 다음 희망해,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 캠페인

-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모금 캠페인 전개

⑪ 아름다운 마무리 '동전모금 캠페인' 전개

- 가정이나 회사 서랍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모아 빈곤층노인 지원 사업 전개

⑫ 청소년봉사자와 독거노인과의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해왔던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요가활동을 1월로서 중단하고, 2월부터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활동으로 청소년과 독거노인이 인연을 맺어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가정방문, 청소, 말벗, 산책 등의 재가봉사활동 진행

⑬ 정기 봉사팀과 사무국 간담회 진행

- 밑반찬, 전화말벗, 서울노인복지센터, 묘희원, 진인선원, 리폼, 장터, 청소년 봉사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진행

⑭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봉사단체) : 월 정기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결연 –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 법정스님 생전 지원 인연으로 분기별 물품 전달 / 극빈 장애인 생계비 지원

자연 사업

① 숲기행 – 자연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울림을 찾아서

- 4월~11월 첫째 주 토요일(총 8회)
- 11월은 자원봉사자 참여 숲기행으로 진행

② 천연화장품 강좌

- 천연화장품(로션, 에센스, 스킨) 및 천연 세제(샴푸,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는 강좌 / 매주 수요일 개최 / 5주차 수요일 특강

③ 의류 재활용 리폼 활동

- 헌 의류, 불량 및 자투리 원단, 한복 등을 기증받아 가방 및 잡화 만들기 활동
- 매주 화요일 진행 / 디자인, 재봉틀, 재단 등 재능기부 봉사자 활동 중 / 녹색나눔장터 판매

④ 녹색나눔장터

- 4월부터 11월까지 마지막 일요일 길상사 경내에서 개최 / 기증받은 헌 옷, 헌 책 등 판매
- 친환경 용품, 의류 재활용리폼 상품, 천연화장품 홍보 및 판매

▶ 연대 활동

①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하는 친환경 체험마당 및 녹색나눔장터 개최, 길상사 행사 지원

② 10월 17일 제6회 사랑 나눔 연합 바자회 참여(먹거리 및 녹색장터)

▶ 지부 활성화 사업

– 지역모임 활성화 방안으로 상근인력 지원 양성 / 사업 운영, 집행 가능한 지부로 사업보고, 회계 결산 감사 가능한 지부로 제한을 두어 집행

▶ 법정스님 진영각 운영

– 법정스님의 진영, 유품, 저서 전시하여 방문객 참배토록 관리 운영

– 맑고 향기롭게 간행물, 연꽃 스티커 배포, 장학금 모금

맑고 향기롭게 2016년 달력 –12월 중순경 우송 예정

11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 원 이상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 2016년 달력을 개별 우송해드립니다. 12월 중순경 발송할 예정입니다. 간혹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후원 회원께서는 이때쯤 우편함을 꼭 체크해주셔서 소중하게 제작된 달력이 분실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자가 아닌 연말을 기해 후원하시 분이 계시기에 12월에 후원내역이 확인된 분들께는 내년 1월에 별도로 달력을 우송해 드립니다.

또한, 후원은 하면서 소식지는 받지 않는 분의 경우 달력 우송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달력은 본모임 회원 '월강 권영오'님의 사진작품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및 소식지 발송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마음, 세상,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기, 부정기후원, 후원금액 결정, 후원방법 선택(CMS자동이체, 온라인, 지로) 까지 스스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정관)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

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모임은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발간하여 군법당, 병원, 교도소, 복지단체 등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연간 소정의 우편비를 후원하는 분에 한해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상사 신도등록, 기도, 인등 접수된 불자님은 길상사에서 별도로 개별우송하고 있습니다. 본모임에서는 소식지 발송 우편비와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반송되거나 오랜 기간 후원 내역이 없는 회원님의 경우 본모임 활동에 참여의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후원내역이 전혀 없는 회원의 경우 부득이 개별우송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혹시 익명으로 후원해주셨거나, 사정이 있어 후원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소나 후원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상황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시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 후원을 CMS후원으로 변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모임의 경우 지로용지가 한 달에 1,500여장 발송되는데 실제 후원은 30%정도입니다. 질 좋은 종이가 아깝게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가끔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담당자가 한 장 한 장 본인을 확인해야하고 전산처리과정에서도 오류발생빈도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은행에서도 지로 용지 한 장 받을 때마다 서비스 원가에 비해 230원정도 손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식지 우편발송 봉사자들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인쇄비 외 운영 경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후원하는 세심한 실천이 맑고 향기로운 환경운동이 될 수 있음을 한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목, 금요일(7,8,14,15,21,22,28,29일)/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김치 나눔 : 3월 ~ 11월 둘째 목요일(12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4,11,18,25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 : 첫째 일요일(3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6일)/오후 1시 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6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세계일화실
- 의류리싸이클링강좌모임 : 매주 금요일/세계일화실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한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밑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기도
- 일시 : 12월 5일(토) 오후 7시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2월 12일(토) 오후 8시 30분 ~ 12월 13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 12월 5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2월 1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2월 2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길상사 창건 18주년 기념법회
- 일시 : 12월 1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지기도
- 일시 : 12월 22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주말 선 수련회
- 235기 : 12월 12일 ~ 13일
- 236기 : 12월 19일 ~ 20일
- 장소 : 설법전
- 참가비 : 5만원
- 접수 : 길상사 홈페이지(입금 선착순 마감) / 교무실(02.3672-0036)

불교입문 31기 수계식
- 일자 :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 시간 :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설법전

신행단체 봉사자 모집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각 신행 단체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주저 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실 신행단체는 거사림회, 보현회, 문수회, 지장회, 보리회, 천수회(템플), 청년회, 합창단, 새신도봉사회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길상사와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문의 :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보리회(도서관) 신입 회원 모집
길상사는 1만여권의 도서(불교서적 70%)를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도서를 대여하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여, 매일 반야심경을 사경할 수 있도록 붓과 먹을 준비해두었으며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책읽기를 좋아하고 도서를 아끼는 길상사 신도님중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보리회'에서 봉사하실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신정합동차례	1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월 2일	오후 7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월 9일	오후 8시 30분 ~ 오전 3시 50분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1월 16일	오후 9시 ~ 오전 3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1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월 2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초대합니다 -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12월 5일(토) 오후 4시 30분 / 선열당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하신 회원님을 초대하여 웃음과 반가움이 가득한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송년회는 맑고 향기롭게라는 인연으로 만난 한식구로서 조촐한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으니 주인 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 참여가 가능한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 후원회원님께서는 사무국에 **사전 접수**를 해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프로그램** : 저녁식사·모범 봉사자 시상·활동 보고·화합의 시간·행운권 추첨

* 당일 참석하신 봉사자, 후원회원님께 법정 스님 저서 1권 증정

길상사 18주년 창건법회

12월 13일(일)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삼각산 자락에 향 사르며 첫 목탁을 울리던 날은 1997년 12월 14일입니다.

길상사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상사는 개원 기념법회를 창건일에 가까운 일요일 12월 13일 극락전에서 오전 9시 50분부터 봉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길상사의 창건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후에는 2016년 달력을 배포해드립니다.

2015년 12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50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 내
☎02)741-4696